



닭경제능력검정소 자동화시설 설명회 개최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에서 지난 3월 22일 본회 회장단을 비롯 검정위원, 자문의원, 각계 인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아 1

차년도 사업이 총 5억 4천 3백 2십만 7천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완공된 이 시설은 육추사와 성계사 2동으로 일반 양계농가들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본 시설의 검정을 통한 사양지침을 알려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목적으로 자동화시설을 하여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본문 48페이지 참조)

비료관리법 개정 건의

계분 양계농장에서 자유로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본회는 효율적인 계분 처리를 위해 생산된 계분을 양계농가에서 직접 자유로이 포장·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였다.

—다 음—

가. 양계농가에서는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계분처리(발효 건조로 유기질 비료화)시설을 최신식으로 갖추고 환경 보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처리되어 유기질 비료화된 계분을 판매코자 해도 비료관리법 제 2조 3항 및 동법 제 11조 1항 규정의 저촉을 받아 비료로 판매할 수 없으며 비료원료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어 허가된 비료생산업자(일부)가 의도적으로 생산된 계분의 운송을 지연시켜 가격을 절하시키는 등 각종 횡포로 양계농가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양계농가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나. 현재 양계농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분처리시설은 정부에서 계분비료 공장허가를 받은 업체의 시설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여기서 생산되는

계분비료도 기존 허가업체에서 생산되는 계분비료의 성분과 질적인 면에서 동일하거나 우수한데도 제도의 모순으로 비료관리법상의 무허가 비료이므로 기존의 비료생산업체 또는 실수요자에게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일뿐 아니라

다.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양계농가(축산농가 포함)의 경우는 양계업을 본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계분을 자가처리하여 완벽한 유기질 비료화된 계분을 판매코자 하는 것일뿐 비료생산업체가 주업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료생산업 허가나 등록을 할 자유가 없으므로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계분처리시설(발효건조로 유기질 비료화가 가능한 최신식 자동화시설)을 한 농가에 대하여는 허가나 등록절차 없이 처리된 계분을 자유로이 포장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허가된 비료생산업자의 횡포를 방지하여 양계인의 원성을 해소시킴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계분비료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생산계분의 조속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농가에서 생산 발효건조된 계분을 허가나 등록절차 없이 자유로이 포장판매(계분을 종이포대 또는 마대 등에 담아 완전 봉합한 상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양계장내 외국인 기술연수생 소요조사

최근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수축산부문에도 다른산업 분야와 같이 외국인 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키 위해 농림수산부 인력51110-67('95. 3.10)호에 의거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회는 각 농장별로 소요인원

을 지난 25일까지 조사하였다.

많은 농장에서 관심을 보인 이번 조사는 농수축산업 별로 소요량이 집계되어 외국인 기술연수생 활용시의 예상효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 단체 회원조합의 의견을 수렴한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닭경제능력검정소 수입종란 검역시행장 지정

본회가 수입종란의 검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동물검역소에 수입종란 검역시행장 지정을 건의한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에 의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았다.

지정기간은 '95. 3.22~4.21일 까지이며 검역시설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²

검역시설	302.26	종란보관실	41.76	부화장	93.09	훈증실	33.94
검역준비실	52.8	털의실	9.5	관리인숙소	68.47	소각장	2.7

일회용 종이난џ 사용 수도권계란상인 연합회가 적극 협조키로

본회가 지난해 9월부터 위생적인 계란 유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종이난џ 사용이 사양가들의 인식 부족과 상인들의 비협조로 그동안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지난 3월 18일 수도권상인연합회로부터 본회가 통보한 전계연 95-1호에 대한 토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통보받음에 따라 앞으로 계란유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

1. 농장에서 난좌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2. 상인들 사이 거래시에도 난좌를 주고 받지 않는다.
3. 전염병의 오염에 주변인 난좌를 절대로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4. 양계 농가에서는 만일 거래상인이 난좌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난좌대금은 절대로 공제해 주지 않는다.

1995년 3월 18일

수도권계란상인연합회 정 현 관



닭고기 2차 가공 제품의 경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예정

본회는 육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내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월 19일 도계육의 품질관리 및 닭고기 가공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계육의 품질관리와 KS제도”란 주제로 서울산업대 이영현 교수가, 미시시피대 T. C. Chen 교수가 “닭고기 2차 가공제품 경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육계분과 위원회 개최 (주)하림 세미나 겸해

3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에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주)하림의 계열화사업 추진방향과 우리나라의 육

계산업의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주)하림의 정문성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지역별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닭고기 공매로 인한 불안이 확산되며 입추열기가 다소 가라앉고 있지만 앞으로 질병피해가 감소하고 병아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때 입추에 신중을 기해야함을 강조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2중시세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3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난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농장수취가격이 고시가에서 4~5원 인하한 상태에서 거래되면서 유통의 문제점을 여전히 남긴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ND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백신약 품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질병이 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함을 강조하고 난가의 이중시세 형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난가고시가격을 난가 실제수취가로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난가문제 외에 계란의 품질에 신경을 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 스스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정위원회 개최 자동화 시설 준공식 참석



본회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22일 닭경제능력검정소에서 개최되었다.

검정소 자동화시설 준공식에 앞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제28회 산란계 중간성적검토와 종계일반검정 심의가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검정위원들과 본회 회장단들은 시설자동화 계사준공식에 참석하고 계사내부를 둘러보았다.

진천분회 현판식 거행

본회 진천분회(분회장 반명수)는 지난 2월 27일 진천읍내에서 본회 최원악 부회장과 이규성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갔다.

· 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03-21번지



· 전화 : (0434)33-0790

포천채란분회 총회개최 및 임원개선

본회 포천채란분회(분회장 김정식)는 지난 16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종이난좌 사용 등 채란업계의 당면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임원개선이 있었다.



△김정식

- 회장 : 김정식(유임)
- 부회장 : 윤경호(신임)
- 이사 : 김낙주, 김기철, 현종, 박명섭, 이덕우
- 감사 : 유경문, 김종평
- 총무 : 손기성